

精油産業에 대한 支援對策이 時急하다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I. 머리말

제 1차 석유위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오늘 날, 세계의 석유시장과 石油産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세계석유시장은 그 동안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거치면서 ①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② 세계原油공급에 있어서의 OPEC비중의 감소와 카르텔기능의 약화, ③ 현물시장기능의 확대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 석유사정도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및 脫石油政策의 추진과 경기회복의 지연 등으로 석유수요는 지난 79년을 피크로 하여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精製施設능력은 최근 10년간 약 2배가 늘어났고, 특히 79년 이후에는 雙龍精油의 가동과 湖南精油의 증설로 인해 정제능력은 21만B/D가 늘어나 36%의 신장을 기록한 반면, 원유도입량은 81년의 51만B/D에서 82년에는 49만B/D로 약 4%가 감소했다.

지난 1세기 동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石油에너지는 절대매장량의 한계와 자원의 有限性を 인식한 産油國의 내셔널리즘 등장, 石油소유국의 편중과 자원의 무기화추세에 따른 가격의 급상승과 이에 따른 원유수급의 불안정성 등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石油에너지의 代替필요성이 강

조되고 그동안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해 온 산업의 재편성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에너지수급 구조상 高價의 石油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石油의존도의 감축, 代替에너지의 개발, 소비절약 운동의 범국민화 등 脫石油化가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精油産業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精油産業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는 동안 제반 경영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精油産業에 대한 지원제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유류수급 및 가격의 안정기반구축을 위하여는 우선 精油産業에 대한 지원제도 보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표면화되기 시작한 精油産業의 구조개편문제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精油産業의 구조개편 추진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우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민간주도경제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I. 精油産業의 重要性

石油는 다른 에너지源보다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하며, 공업용 기초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主宗에너지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今世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精油工場을 최초로 건설, 가동하게 되고, 그 동안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石油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石油은 우리 나라의 主宗에너지가 되었으며, 석유류 소비가 總에너지소비의 50%, 총수입액에 대한 석유수입대금의 비중이 27%를 상회하게 됨으로써 石油類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게 되었다.

精油産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전체 石油化學업종 총생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치효과도 전체의 19.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의 資本 및 기술집약적 裝置産業이라 할 수 있으며, 석유류소비가 하루에 약 50만배럴 규모에 이르고, 석유류제품 총매출액이 연간 6조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精油産業의 효율적 운용은 곧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精油産業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動力源인 기초에너지의 안정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연료는 물론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石油化學製品의 기초소재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 衣食住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精油産業의 고용효과는 精油産業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5천여명에 이르며,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 종사하는 인원을 모두 합할 경우 수만명에 달하며, 관련산업의 연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고용효과는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石油類는 국가비상시 필수물자임을 감안할 때, 精油産業은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절대필요한 전략산업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직접, 간접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의 안정성장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精油産業의 당면문제

1. 稼動率의 저하

국내 精油産業은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는 동안 原油價상승과 공급불안정으로 인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석유의존도의 감축과 소비절약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됨에 따라 석유소비의 감소와 가동율저하로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79년을 고비로 계속된 세계적인 不況과 경기침체는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수요는 64년 하루 2만배럴 수준에서 79년에는 50만 8천배럴 수준으로 무려 25배가 늘어났으나, 第2次 石油危機 이후 석유류소비는 크게 둔화되어 80년에는 1% 81년 0.4%, 82년 3%씩 각각 감소하였다.

国内油類需要의 변동추이

구 분	77	78	79	80	81	82
需 要(천B)	414	456	508	501	499	483
증 감율(%)	16	10	11	▲ 1	▲ 0.4	▲ 3

한편 국내精製能力은 78년의 58만B/D에서 제 2차 석유위기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雙龍精油의 6만 B/D 가동과 湖南精油의 15만B/D 증설로 현재는 79만B/D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유류수요 감퇴와 정제능력의 증대는 精油産業의 가동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油類수요의 계절성 및 정기보수기간을 감안한 적정 가동율인 75~80% 수준을 크게 밀도는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国内精油産業의 稼動率推移

구 분	77	78	79	80	81	82
精製能力(천B/D)	440	580	580	640	727.5	790
原油투입량(")	418	458	501	493	489	474
稼 動 率 (%)	95	79	86	77	62	60

〈註〉 연간 精製能力은 시설완공 시점을 고려한 것임.

이와 같은 가동율저하는 유류시설을 발생시킴으로써 原價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가동율제고를 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精油社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精油業界로서는 존립에 관한 문제

□ 石油時評 □

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가동율저하의 장기간 지속현상은 精油産業의 안정성장기반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동율저하상태에서 精油産業의 구조개편을 위한 신규 투자재원의 조달은 油師政策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經營基盤의 악화

국내精油産業은 과거 수익성,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내製造業 평균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을 유지해

精油社의 損益상황

(單位: 억원)

		油公	湖南	京仁	雙龍	極東	計
1979	1. 稅前	233	161	33	-	5	432
	○精油	0	122	▲21	-	▲5	96
	○기타	233	39	54	-	10	336
2. 법인세등	120	100	15	-	3	238	
3. 稅後	113	61	18	-	2	194	
1980	1. 稅前	29	189	▲99	▲80	▲21	18
	○精油	▲233	130	▲77	▲80	▲34	▲294
	○기타	262	59	▲22	-	13	312
2. 법인세등	376	109	17	-	-	502	
3. 稅後	▲347	80	▲116	▲80	▲21	▲484	
1981	1. 稅前	68	▲56	187	50	6	155
	○精油	▲58	▲104	134	▲5	▲11	▲44
	○기타	126	48	53	▲45	17	199
2. 법인세등	178	46	144	-	8	376	
3. 稅後	▲110	▲102	43	▲50	▲2	▲221	
1982	1. 稅前	290	277	271	96	42	976
	○精油	97	253	205	228	30	813
	○기타	192	24	67	▲132	12	163
2. 법인세등	131	124	148	-	15	418	
3. 稅後	159	153	123	96	27	558	
누계 (79~82)	1. 稅前	620	571	393	▲34	32	1,582
	○精油	▲194	401	241	143	▲20	571
	○기타	814	170	152	▲177	52	1,011
2. 법인세	805	379	325	-	26	1,535	
3. 稅後	▲185	192	68	▲34	6	47	

〈註〉 其他部門내역: 油公-석유화학, 윤활유

湖油-윤활유

京仁-발전

雙龍-윤활기유

極東-윤활유

왔을 뿐만 아니라, 79년 이후 수요감퇴로 精油産業은 가동율의 저하, 高原油價, 환율의 급등, 稅制 및 가격조정의 경직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되어 왔다.

第2次 石油危機 이후 79~82년 기간의 精油社의 경영성과를 보면, 精油部門에서 稅前 5백71억원과 發電, 石油化学, 潤滑유 등 其他部門에서 稅前 1천11억원의 수익을 실현하여 法人稅 등 1천5백35억원을 납부하고 稅後 47억원의 수익성과를 얻었다.

즉 79년에는 稅後 1백94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제2차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80년, 81년에는 각각 4백84억원, 2백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82년에는 값싼 現物市場의 원유구입 확대, 유전스기간 단축 등의 경영효율화에 힘입어 다소 호전되었다.

80, 81년 精油部門의 결손이 막대하게 발생한 이유중의 하나는 제2차 석유위기시 国内油師의 급등을 막기 위해 油價를 현실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精油社의 이익금은 精油社의 수익부문인 發電, 石油化学, 潤滑유 등의 其他部門을 포함하여도 국내 다른 산업수준이나 외국의 정유산업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国内産業別 매출액 利益率 比較

(單位: %)

年 度	精油産業	건설업	제조업
1979	0.9	4	1.7
1980	▲1.2	2.2	▲1.0
1981	▲0.4	1.6	▲0.7
1982	0.9		

国別精油産業 배럴당 利益水準 比較

(單位: \$/B)

年 度	韓國	日本	美國(EXXON)	英國(BP)
1979	0.22	0.82	2.21	4.05
1980	▲0.40	0.25	3.13	3.92
1981	▲0.17	0.76	3.32	2.44

정유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하에 계속 누적되어 온 극도의 収益性 악화로 말미암아 에너지 및 精油産業 投資기반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精油産業은 공익성의 강제로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 私企業으로서의 적정이익의 보장이라는 수익성의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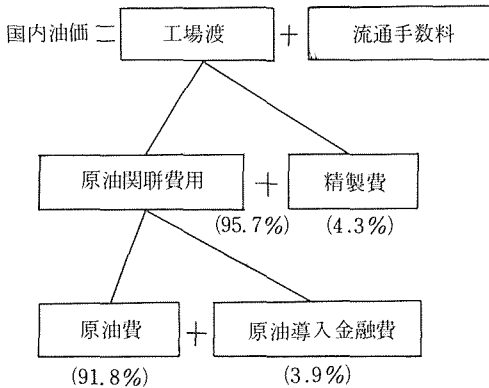
3. 換率상승과 精油社의 손실누증

정유산업의 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換率의 급상승을 들 수 있다.

国内油価는 크게 原油代관련비용과 精製費로 구성되어 있으며, 原油代관련비용은 다시 原油費와 原油도입금융비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国内油価구조는 原油費 + 原油도입금융비 + 精製費로 3분되며, 원유비는 원유가격(FOB), 원유수송비, 국내도착부대비(방위세, 무역특혜자금, L/C개설비 등) 基金(안정, 비축, 개발) 및 관세(CIF의 5%)로 구성되고, 원유도입금융비는 원유도입유전스사용에 따른 120~180일간의 단기외화차입금융비이다.

油価構造와 그 比重



油価구조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원유대관련비용이 95.7%나 되며, 그 다음으로 이 가운데 3.9%를 차지하는 원유도입금융비의 존재이다. 원유도입관련비는 對外 결제의 달러貨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되므로 국내油価구조 중 95.7%는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油価구조상 3.9%를 차지하는 원유도입 금융비도 자금의 규모로 보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原油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매일 약 1백20억원의 자금이 소요

되나 이 자금의 확보에는 産油国에서 원유선적 → 국내도착 → 통관 → 精油社탱크入庫까지 약 30일, 원유재고기간 약 20일, 제품재고 약 20일, 판매후代金회수기간 약 30일 등 모두 합하여 약 10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精油社들은 매일 1백20억원씩 100일 동안 모두 1조2천억원을 산유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국내자금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약 23억달러에 달하는 外貨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차입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原油費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대외채무와 그 이자가 그만큼 증대된다.

유전스 換差損 발생現況

	78	79	80	81	82
연 평균 換率 (증가율)	485 (0)	485 (0)	622.6 (36.6%)	682.5 (6.1%)	727.4 (6.6%)
換差損 (억원)	-	-	2,905	1,200	1,281
(W/Bbl)	-	-	1,656	658	724

환율이 오를 경우, 国内油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換率이 1% 오를 경우, 精油社에는 연간 약 6백49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油価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換率은 지난 11월 2일 6%線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精油社의 손실액은 7백25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油価인상요인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精油産業 재무구조의 악화, 원유도입 유전스 사용규모의 증가, 이에 따른 국제수지의 영향외에도 누적된 인상요인을 국내油価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여타 물가에의 충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精油産業의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율안정과 환리스스크대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환율변동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油価·換率連動制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石油製品輸入自由化와 消費地精製主義의 퇴색

당초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석유시장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보다는 原油를 도입하여 정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수급안정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消費地精製主義 원칙을 세워 시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석유사정이 꺾박할 경우, 제품수입은 原油수입보다 供給源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제품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경제안보상의 견지에서라도 문제점이 많다. 또한 産油国에서도 원유와 제품을 함께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製品수입의 확대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제품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실수요자나 수입업자는 국내가격보다 싼 특정제품이나 가격이 저렴한 기간동안만 직수입을 할 것이며, 가격이 비싸지면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精油社들은 이러한 수입물량을 제외한 다른 物量의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석유제품은 連産品이므로 특정제품만을 감소하거나 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영향은 全製品의 가격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미칠 소지가 많다.

또한 精油社들은 이로 인해 일관성있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石油의 안정공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石油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국제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戰略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반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개방정책이 精油産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石油製品의 수출입은 특수유종의 수요증감에 따라 原油정제에 의한 조절만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精油業者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精油産業은 바야흐로 原油의 단순도입·정제단계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綜合에너지産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정유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유산업의 自生力 배양과 체질강화가 긴요하지만, 정유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인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정유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누증을 고려하여 油價自律化 이전에 換差損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産油国消息 □

OPEC의 10月産油量 110萬b/d 超過生産

OPEC의 10月 産油量은 總生産上線線 1,750萬 b/d보다 높은 1,860萬b/d에 달했다고 IEA가 10월 2일 발표했다. IEA의 이같은 발표는 지금까지 OPEC會員国の 여러 石油相 및 石油業界가 최근 몇 개월동안 OPEC産油量이 초과되고 있다는 평가를 확인한 것이다.

IEA는 또한 月例石油市況報告書에서 OPEC의 3/4分期 平均産油量은 2/4分期의 1,670萬b/d보다 9% 늘어난 1,820萬b/d로서 3/4分期 世界産油量이 總 4,470萬b/d로서 2/4分期보다 200萬b/d 증가시

킨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면서 10月 世界産油量은 4,540萬b/d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IEA는 OECD의 금년도 4/4分期 石油需要는 昨年同期에 비해 80萬b/d 늘어난 3,510萬b/d로 1984年度 石油需要는 3,420萬b/d로 각각 전망했다.

IEA의 이번 전망은 종전에 발표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IEA는 작년에 4,500萬b/d를 기록한 世界總石油需要는 금년에는 4,430萬b/d, 내년에는 4,480萬b/d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